

오늘부터 진짜 투넘버 시대 열린다... 'e심' 도입

1폰2넘버 시대

스마트폰 한 대 번호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e심(SIM) 서비스가 시작된다. 추가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개인용과 업무용 번호를 구분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유심(USIM)을 갈아 끼울 필요 없이 현지 요금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e심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모듈이다. 범용인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단말기에 내장한 게 e심이다. 역할은 유심과 같지만 가입자 정보 등 이통사 프로파일을 별도로 다운 받아야 한다.

e심은 세계이통사연합회(GSM) 주도 아래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고 2020년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인 티플러스(KCT)만 2020년 7월에 가장 먼저 e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통3사는 스마트워치에 한해 201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유심은 국내 중소 제조사가 만들고 있지만 e심은 해외 기업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국내에 e심 제조 기술이나 특허보유 기업이 없어 해외 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e심은 단말기 안에 탑재해야 하는 만큼 일반 유심보다 크기가 작다. 현재 사용 중인 나노 심이 108㎜라면 e심은 16㎜ 수준이다.

e심은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다. 이용할 이통사를 선택해 e심을 신청하면 이메일 등으로 QR코드를 전달한다.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개통이 완료된다. 비대면·온라인 개통이 가능해 이통사 이동이 보다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대리점에 방문해 유심을 새로 갈아 끼워야 했다.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유심 가격은 7700~8800원이지만 e심은 275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바꾸면 유심은 바꿔 끼우면 되지만 e심은 비용을 내고 다시 다운 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와 이통사는 프로모션으로 e심 가격을 받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당분간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단말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2018년 출시된 아이폰XS 모델부터 이용할

가능하며, 삼성전자는 최근 선보인 갤럭시Z폴드4와 플립4부터 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S20 시리즈부터 e심을 지원했는데 국내에는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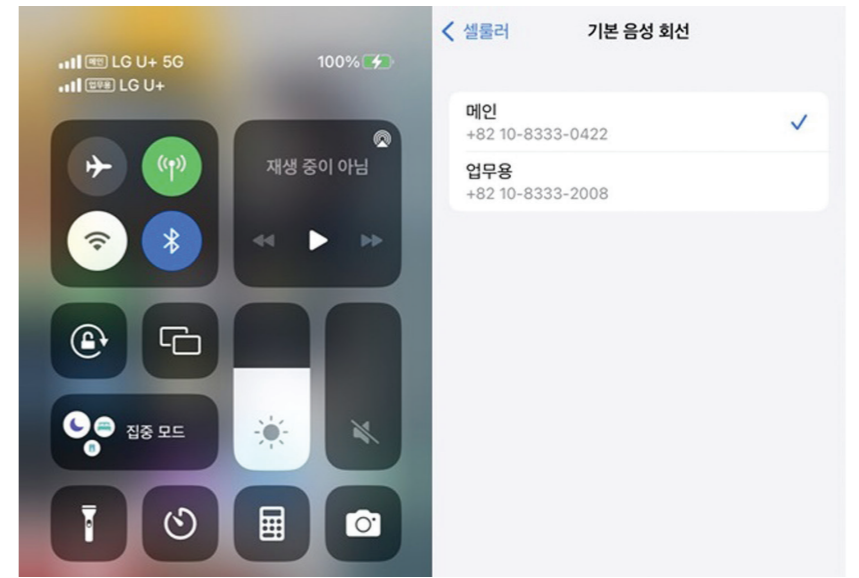
스마트폰 구입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한 번호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호 모두 다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 구매 시 한 번 제공하는 혜택이지만 선택약정은 요금제에 적용하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e심과 유심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두 개 번호를 쓰는 것이 쉬워진다.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등으로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나갈 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현지 요금제가 로밍보다 저렴하다. 이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 현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사용하던 유심을 빼고 그에 맞는 유심을 끼워 넣어야 했다. 이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는 게 불가능하다. e심을 이용하면 유심을 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연락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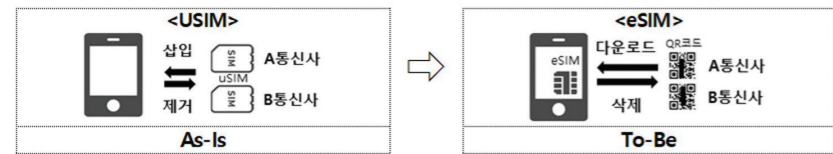
e심은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티플러스 한 곳 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외의 알뜰폰 사업자들도 e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기존대로라면 이용 중인 통신사 두 곳 모두에 분실 신고해야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편의의 제고를 위해 한 곳에만 신고해도 모두 분실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회선 수는 늘겠지만...이통사 수익성엔 '글썽'

이통사+이통사 조합보다 이통사+알뜰폰으로 이용할 듯 e심으로 해외 현지 요금제 가입 쉬워...로밍 수익에 직격탄



가입자 식별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e심(embedded SIM)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기존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과 함께 사용하면 한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추가 번호 개통 가능성이 늘어난 만큼 이동통신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 전망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1일 e심을 상용화한다.

e심은 유심과 달리 요금제 가입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신청한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받으면 된다. 사용할 스마트폰으로 이를 찍으면 개통이 완료된다. 유심 없이 e심만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증가라는 기대감과 수익 악화 우려가 상존한다.

이동전화 회선 수가 정체를 가는데 두 개의 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요금제 가입을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

넷 등을 제외하고, 가입자용 이동전화 회선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 알뜰폰을 제외하면 이통3사 모두 이동전화 회선 수가 계속 줄었다.

e심이 상용화되면 한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 사용이 가능해 업무용-개인용 등으로 사용 대상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쉬워진다. 번호 두 개 사용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번호 두 개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도 두 개를 써야 했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장기적으로 유심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데다 특히 로밍 수익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2020년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을 상용화했다. 기존에는 현지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유심을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오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다. 자칫 유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로밍 요금제 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각종 프로모션으로 해외 방문 고객을 상대로 가입을 독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심을 이용하면서 e심으로 현지 요금제를 개통하는 게 가능하다.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심 번호로 한국에서 오는 연락은 그대로 받으면서 e심으로 더 저렴한 현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유통 매장은 손해가 크다. e심은 비대면·온라인 개통 방식이라 유통점 방문이 필요 없다. 이는 개통 수수료 매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 알뜰폰 입장에선 호재다. 두 번째 번호로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또 기존 사용하던 이통사 번호에서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저렴한 알뜰폰의 데이터 요금제 조합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티플러스에서만 e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통사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KT는 말 빠르게 두 번째 번호 개통을 위한 요금제 '듀얼번호' 상품을 내놨다. 월 8800원을 내면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한다. 음성과 문자는 메인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것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자사 가입자가 타 이통사나 알뜰폰으로 두 번째 번호를 개통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통사나 알뜰폰 모두 e심 상용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통3사나 알뜰폰 모두 e심 상용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통3사나 알뜰폰 모두 e심 상용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던 이들이 갑자기 추가 번호를 개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번호 두 개를 사용하더라도 이통사+이통사 조합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이통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히려 알뜰폰 회선 개통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이용 가능한 단말이 많지 않고 알뜰폰에서도 e심을 위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러하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